"여성 손길로 살기좋은 동네를"

구로 시흥·독산동 주부들 '살구회' 결성

여성교실·공부방·상담등 통해 주민복지 앞장

문 열자마자 1백명참여…놀이방 마련 계획도

서울 구로구 시흥동과 독산동에 사는 주부들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만든 '살구회'(살기좋은 구로지역 만들기 여성회)가 지난 23일 시흥본동에 자리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구로구가 사회운동이 활발한 것 같으나 공단이 밀집해 있는 구로동이나 가리봉동뿐이에요. 오히려 주택가인 이곳은 주민들이 생활에 쫓기다보니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 여자들이 나선 겁니다." 시흥동에서 10여년 동안 살아온 살구회 대표 김주숙 한신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살구회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난주말 개소식을 갖긴 했으나 살구회가 실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두달쯤 된다.

김주숙 교수, 신윤옥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정외영 노동인권회관 상담부장 등 이곳에 사는 여성 10여명이 8월말에 지역여성 모임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기금 5백만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9월 중순 옛 철공소 자리였던 3층건물 지하 20평 공간을 세내어 보름 동안 수리해 보금자리로 꾸몄다.

살구회는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한글·한문·영어·노래반 등 여성교실을 열었다.

바쁜 집안일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쉽게 갖지 못했던 여성들이 뜻밖에 많았던 탓에 회원 모집을 알리는 포스터를 동네 곳곳에 붙이기가 무섭게 1백여명의 여성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남 앞에서 노래라곤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에 참가한 뒤 자신감이 붙더군요. 지난주 시어머니 생신 때 노래교실에서 배운 솜씨를 한껏 자랑했습니다." 살구회 회원 김순화(주부·31)씨는 즐거워한다.

다음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했다. 맞벌이와 경제형편상 따로 과외를 시키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난 16일 연 국민학생 공부방은 어린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살구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충분했다. 여성교실과 공부방의 선생님 역할은 이 지역 대학생들이 선뜻 맡아주었다.

이밖에 요일별로 개최하는 노인·자녀교육·가족문제·여성노동 상담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몇가지 프로그램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자신감을 갖고 지난주말 뒤늦게 개소식을 가진 것이다.

현재 살구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놀이방 마련이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취학전 어린이들을 돌봐줄 놀이방의 중요성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운동도 중앙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고요." 김 교수는 살구회를 지역여성모임의 모델로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살구회는 구로지역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895-5973.

〈안재승 기자〉

구로지역에 사는 대학생들의 도움을 얻어 살구회가 열고 있는 국민학생 공부방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정우 기자〉